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기 6차년도(2024년) 데이터를 이용한 2차 자료분석

박미라¹

¹창신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I. 서론

1. 연구 배경과 연구목적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 형성과 사회적 관계 발달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적 시기로, 이 시기의 학교생활적응은 개인의 심리·정서적 안정 뿐 아니라 성인기 사회적 기능 수행에도 영향을 미친다. 학교는 학업성취, 또래관계, 정서적 안녕, 학교 소속감 등 다양한 발달 지표가 교차하는 핵심 사회화 공간이며, 특히 다문화청소년에게는 사회통합을 실제로 경험하는 1차적 장이다. 그러므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학문적 의의와 교육 및 보건 정책 수립 측면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사회환경적 요인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로, 이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경로를 동태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부모·친구·교사의지지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들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고자 시행하였다.

II. 본론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며,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2차 자료 분석 연구이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2기는 2019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하는 종단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기 6차년도(2024년) 데이터에 대해 해당 홈페이지(<https://www.nypi.re.kr>)를 통해, 원시 자료를 요청하여 개인정보에 대해 식별 불가능한 형태로 받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표본 추출은 1단계로 각 층별로 랜덤(random)하게 추출하는 층화임의추출법을 적용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층 내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추출률을 크게 하는 확률비례추출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표본수는 1773명이었다.

3. 연구 도구

1) 인구사회학적 요인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 거주지역, 다문화 청소년 유형, 월평균 소득수준 등을 분석하였다.

2) 학교생활적응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학교생활 5문항 중 일부 문항을 발췌 및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4)로 측정하였다. MAPS 1주기 7차년도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3) 자아존중감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3문항으로 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4)로 측정하였다. MAPS 1주기 7차년도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9이었다.

4) 문화적응스트레스

Hovey와 King 의 SAFE(Scale for Adolescents) 척도와 Nho 의 문항을 홍진주가 9문항으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4)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Hovey & King(1996)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 노충래(2000)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6, 홍진주(2004) 연구에서는.76,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5) 사회적고립

Kim 과 Kim 에 의해 개발된 척도를 Lee 가 5문항으로 수정 및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4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이경상의 연구에서 Chronbach' s α 는 .91,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6) 부모지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문항을 3문항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4)로 측정하였다 . MAPS 1주기 7차년도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7) 친구지지와 교사의지지

Han과 Yoo의 사회적지지 지각 척도 중 친구 지지 8개 문항을 3개 문항으로, 교사지지 8개 문항을 3개문항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로 측정하였다 . 친구지지는 MAPS 1주기 7차년도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교사의지지는 MAPS 1주기 7차년도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5.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5. 자료분석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자료는 다단계 층화집락추출에 의한 자료이기 때문에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제시한 분석방법을 반영하여 SPSS WIN 25.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 요인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 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 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대상자의 학교생활적응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단변량 분석에서 p값이 0.05 미만인 변수를 대상으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론

1. 연구결과

환자안전관리 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독립변수들 간의 공차를 검정한 결과는 .579-.697으로 기준인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434-1.727로 10보다 적게 나타나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 Test의 경우 d=1.943으로 수용기준에 부합하여 잔차의 자기 상관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생활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 거주지역, 월평균소득 수준과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고립, 사회적지지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성별과 거주지역, 월평균소득수준은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사회적지지인 교사의지지(β =.399, p <.001), 친구의지지(β =.227, p <.001), 부모의지지(β =.167, p <.001)와 자아존중감(β =.130, p =.007)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하는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모델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설명력은 54.3%였다(F =87.62, p =.001).

Table 1.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Shool Life Adaption (N=1,173)

	B	SE	β	t	p
(Constant)	.572	.151		3.79	<.001
Teacher's support	.252	.032	.399	7.82	<.001
Friend's support	.165	.038	.227	4.39	<.001
Parental support	.165	.047	.167	3.53	<.001
Self-esteem	.114	.042	.130	2.70	.007
R^2 =.737, Adj- R^2 =.543, $F(p)$ =87.62(<.001), Tolerance:.579-.697, VIF=1.434-1.727, d=1.943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하는 데 있어 교사, 친구, 부모 등의 사회적 지지 체계와 자아존중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교사지지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점은 학교 기반 개입의 중요하며, 이는 교육정책 및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설계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또래 및 가족을 포함한 다층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횡단자료 분석에 기반하고 있어 인과관계를 확정적으로 해석하는 데 제한이 있으므로 종단자료를 활용한 성장모형이나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변수 간 경로와 매개·조절효과를 정교하게 검증하기를 제언한다.